

아파트 중심으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모형제시

: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차 지 영(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본 연구는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진행과정에서의 가족친화적 요소 및 성공적 핵심 내용을 검토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키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특히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던 본 마을공동체 사업은 교류와 소통의 통로부족에서 오는 단절감의 대표성을 띄어던 아파트의 일반적인 특수성을 극복하고 오히려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 마을이라는 인간적이고, 온정적인 가족친화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고유의 마을이 지니었던 안전감, 친밀감, 통합감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어 아파트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공동체형성과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족의 구조적·기능적인 변화로 인한 현대사회의 소통부족, 개인주의로 인한 소외감·단절감 등과 함께 심리적인 빈곤감의 문제, 가족내 돌봄의 문제 등은 사회적인 문제로써 이슈화 되었으며 최근 들어 발생하는 학교 내의 왕따, 폭력, 그리고 자살, 성폭행 등의 범죄가 심심치 않게 보도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함께 예방적 기능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육아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제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지속적인 활동 및 동기부여의 한계, 공간마련에 대한 제한점, 관리 및 리더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운영 및 진행상의 어려움을 ‘지역나눔’과 ‘공통의 공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본 가족친화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의 내용으로써 첫째, 관악구마을만들기를 형성 및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구성요소 및 접근방식의 특징을 정리해보며 둘째, 관악구마을만들기의 진행과정에서의 센터의 욕구와 역할, 참여자의 욕구와 역할을 탐색하며 정리해보며 셋째, 이상의 내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아파트중심의 마을만들기 모델을 지역과 과정에 따라 모형화 하며 특징을 중심으로 사업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그동안 가족친화적 마을만들기를 진행을 위해 검토하였던 보고서 및 다양한 자료,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였던 기관의 자료를 살펴보고 참고자료 및 유형화하는데 참조를 할 것이며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던 마을만들기 사례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마을만들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아파트 부녀회장 및 활동가 인터뷰등과 함께 기존의 프로그램 진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마을 만들기 진행과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사업은 아파트라는 공간의 재창조를 통해서 공간 및 관리인력에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인적, 물적 인프라를 발견하게 독려하여 아파트 단지라는 일종의 구조화된 마을로써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나눔’이라는 진행방식과 아파트 지역주민의 주도성을 자연스럽게 부여함으로써 인간성, 이웃에 관심과 애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는데 본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친화마을만들기 과정을 모형화하여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실현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마련하고자 한다.